

조선말의 사투리*

李克魯

1931년 12월 27일

차례

一. 序言	1
二. 方言分布區域	2
三. 各方言의 特色	2
1. 語調.	2
2. 音韻.	3
3. 語法.	4
4. 語彙.	5
四. 結論	6

一. 序言

國語教育이 發達된 나라에도 곧을 따라 사투리가 없지 아니 하다. 或은 地理的 環境을 따라 或은 政治勢力의 變動을 좇아 或은 이웃 文化의 接觸으로 말미암아 方言의 發生과 存在는 自然의 理어니와 또 사람으로 個性發達의 特徵이 아니라 할 수 없다.

朝鮮은 그리 크지 아니한 地域으로서 方言이 相當히 다르고 또 많은 셈이다. 假令 教育도 받지 못하고 出入도 넓지 못한 두 다른 方言地方 사람이 처음 맞난다면 通情이 잘 못된 것은 事實이다. 朝鮮말에 方言이 이리케 복잡한 것도 우에 말한 여러 가지 原因이 다 잇는 것이다.

山國의 朝鮮이니 交通不便도 한 原因이요 이웃의 關係로는 政治上이나 文化上으로 北에는 女眞(滿洲), 蒙古, 中國, 露西亞의 一南에는 日本의 影響을 받은 것이나 國內移民

* 《동광》 제 29 호 pp. 9-12.

2 조선말의 사투리

關係로는 高麗 睿宗 時에는 尹瓘의, 李朝 世宗 時에 金宗瑞의 北征으로 女眞族을 咸鏡道에서 滿洲로 물러치고 中南朝鮮人(特히 慶尙道人)을 그 땅에 移民시키어 直接 影響을 준 것이 다 한 原因이 된다. 그러나 朝鮮말의 方言은 古今語를 比較한바 大體로 時間的 變遷으로 생긴 것이 많다.

二. 方言分布區域

사투리를 細別하여 말하기는 極 複雜할뿐아니라 오래 동안 詳細한 調査를 하지 않고는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므로 朝鮮語를 五大方言으로 大別하여 말하려 한다.

- (1) 關西方言(平安道사투리, 高句麗方言)
- (2) 湖南方言(全羅道사투리, 百濟方言)
- (3) 嶺南方言(慶尙道사투리, 新羅方言)
- (4) 關北方言(咸鏡道사투리, 沃沮方言)
- (5) 中部方言(京畿道사투리, 混成方言)

이 다섯 가지 사투리의 地理歷史的 關係를 말하자면 關西方言은 高句麗 故地를 中心하얏으니 平安南北道와 黃海道一部에 普及되었고 湖南方言은 百濟 故地를 中心하얏으니 全羅南北道와 忠淸南道에 普及되었고 嶺南方言은 新羅 故地를 中心하얏으니 慶尙南北道와 江原道 一部와(注文律以南) 全羅南道 海岸一帶에 普及되었고 關北方言은 沃沮 故地로 女眞族 寓居地이엇섯고 其後에 中南朝鮮의 植民地인 咸鏡南北道에 普及되었고 中部地方은 高句麗, 百濟, 新羅 三國交界地요 또 高麗朝와 李朝와의 서울을 두고 1,000年동안 政治中心地로 各地方 사람의 交際場이된 京畿道와 또 그 隣近地인 忠淸北道와 江原道一部(襄陽以北)와 黃海道一部에 普及되었다.

三. 各方言의 特色

어느 곧 사투리나 그 特色을 여러 가지 點으로 몰 수 있다. 或은 語彙가 다르고 或은 語法이 다르며 或은 音韻이 다르고 或은 語調가 다르다. 그러나 그 中에 方言區別은 語調로써 定하게 되는 것이다. 音韻이나 語法이나 語彙는 한 方言안에서도 서로 다르고 또 다른 방언과도 서로 같은 것이 많다.

1. 語調.

朝鮮말의 語調를 西海岸平野語調와 東海岸山嶽語調로 大別할수 있다. 平野語調는 高低보다 長短을 重히 여기는 것으로 부드럽고 고운 것이 特色이다. 全羅道, 京畿道, 平安道 사투리들이 여기에 屬하는데 또 各各 特色을 말하자면 全羅道語調는 情緒의 미감이 있고 京畿道語調는 社交의 美感이 있고 平安道語調는 活潑의 美感이 있다. 山嶽語調는

長短보다 語低를 重히 여기는 것으로 억세고 딱딱한 것이 特色이다. 咸鏡道와 慶尚道 사투리들이 여기에 屬하는데 또 各各 그 다른 點을 말하면 咸鏡道語調는 剛毅의 美感이 있고 慶尚道語調는 純直의 美感이 있다.

2. 音韻.

各地方에 말의 소리가 다름은 尠 複雜하다. 그러므로 重要的 몇 소리의 歷史的 變遷만을 方言의 實例로써 말하려 한다.

母音 「·」 音價에 對한 여러 學說이 있으나 그것을 여기에 紹介할 必要가 없고 다만 古書에 그 소리를 썼던 말이 여러 가지 母音으로 變하는 가운데 ㅓ와 ㅜ음으로 變한 것만 말하려 한다. 大體로 全羅南道와 全羅北道一部와 慶尚南道大部와 咸鏡北道北部에서는 ㅜ音으로 變한 말이 其他 各地方에서는 ㅓ音으로 變하였다. 例를 들면

- (臂)을 前者는 ㅓ 後者는 ㅓ
- ㅓ 리(蠶)을 前者는 ㅓ 리 後者는 ㅓ 리
- ㅓ(馬)을 前者는 ㅓ 後者는 ㅓ

자음 「△」 音價는 英語의 z와 비슷한 것인데 이제 ㅜ(喉音 ㅜ아야줄의 子音자리 에 있는 소리)와 ㅓ 두 소리로 變하였다. 大體로 보아서 中部와 關西地方에서는 ㅜ로 變하였고 湖南과 嶺南과 關北地方에서는 ㅓ로 變하였다. 例를 들면

- 가을(秋)을 가슬 겨울(冬)을 저슬
- 구유(槽)를 구수, 가위(剪刀)를 가새

자음 「ㄴ」 音價는 德語에 w音과 비슷한 것으로 이제 ㅜ와 ㅓ로 變하였는데 大體로 嶺南과 關北地方에서는 ㅓ로 其他地方에서는 ㅜ로 變하였다. 例를 들면

- ㅓ다 ㅓ버서 ㅓ븐 ㅓ다 ㅓ바서 ㅓ븐
- ㅓ다 ㅓ워서 ㅓ운 ㅓ다 ㅓ워서 ㅓ운
- ㅓㅓ다 ㅓㅓ버서 ㅓㅓ븐
- ㅓㅓ다 ㅓㅓ워서 ㅓㅓ운

다더 줄과 ㅓㅓ터 줄이 關西地方에만 單母音化하였고 其他地方에서는 ㅓ蓋音化하였다. 例를 들면

- 綴字 / 關西地方 / 其他地方
- ㅓㅓ거장(停車場) / ㅓㅓ거당 / ㅓㅓ거장
 - ㅓㅓ디(天地) / ㅓㅓ디 / ㅓㅓ지
 - ㅓㅓ로(鐵路) / ㅓㅓ로 / ㅓㅓ로

3. 語法.

이것도 各 地方에서 獨特하게 쓰이는 토가 많이 있으나 이제 몇 가지식 例만 들고자 한다.

(一) 關西方言.

- (1) 願望과 要求의 뜻을 表하는 動詞尾에 쓰는 존경중결토 「라구요」
하시라구요 (爲), 잡수시라구요 (食), 오시라구요 (來)
- (2) 名詞, 形容詞, 動詞尾에 다 쓰이는 尊敬疑問토 「나요」
사람이나요 (人), 희나요 (白), 검으나요 (黑), 가나요 (去), 먹나요 (食)
- (3) 名, 形, 動 各品詞尾에 쓰이는 平交 或 手下人에게 쓰는 疑問토 「슴마」 (母音下에 ㅁ마)
動詞: 감마 (去) 現在 갓슴마 과거 가갓슴마 미래 詞 먹슴마 (食) 먹엇슴마 먹갓슴마
形容詞: 높슴마 (高) 돛슴마 (好) 참마 (寒)
名詞: 사람임마 (人) 슴마 (牛) 조힘마 (紙)
- (4) 過去完了를 表하는 「엇섯」을 「엇뎛」으로 씀.
갓뎛소 (去), 먹엇뎛소 (食), 주엇뎛소 (給)
- (5) 主詞토 「가」를 「래或리」로 씀.
내래 (내가) 임재래 (당신이) 개-리 (그 아이가)

(二) 湖南方言. (全羅道와 忠淸南道)

- (1) 名, 形, 動 各品詞尾에 尊稱으로 問答語에 通用하는 토. 「는게라오」, 「ㄴ게라오」 (「는 그라오」, 「는 거라오」, 「는 가라오」)
하는게 라오 (爲) 現 헛는게 라오 過 하갓는게 라오 未 크게 라오 (大), 적은게 라오 (小), 조힘게 라오 (紙), 사람인게 라오 (人)
- (2) 動詞의 過去와 未來의 問答語에 通用하는 尊稱토.
「서라오」 샛서라오 (爲) [過], 하갓서라오 [未]
- (3) 名, 形, 動 各品詞의 問答語에 通用되는 尊稱 토.
「지라오」, 헛지라오 (爲) [過], 하지라오, 하갓지라오 [未], 히지라오 (白), 검지라오 (黑), 사람이지라오 (人)

(三) 嶺南方言.

- (1) 名, 形, 動 各品詞尾에 尊稱으로 쓰는 의문토. 「는 기오」, 「ㄴ기오」 (녕기오, 능개)

하는 기오(爲)〔現〕, 헛는 기오〔過〕, 하겟는 기오〔未〕 흰기오(白), 검은 기오(黑), 사람인 기오(人), 갠 기오(犬)

- (2) 將次 實行如何를 表示하는 뜻으로 原動詞에 助動詞 「하」를 連接시키는 말.
「르락」(리라고의 略된 말) 할락 하닝기오(爲), 먹을락 하닝기오(食)
- (3) 接續토 와, 과를 「강」으로 쓰는 것
소강 말강(소와 말과), 나강 너강(나와 너와)

(四) 關北方言.

- (1) 名, 形, 動 各品詞尾에 尊稱으로 答하는대 쓰는 토. 「꼬마」(꾸마, 구마)
하 꼬마(爲)〔現在〕, 헛소 꼬마〔過去〕, 하겟소 꼬마〔未來〕 희우 꼬마(白),
검소 꼬마(黑), 개우 꼬마(犬), 사람이우 꼬마(人)
- (2) 名, 形, 動 各品詞尾에 尊稱으로 問答語에 通用하는 토. 「매」(매)
함매(爲)〔現〕, 헛슴매〔過〕, 하겟슴매〔未〕 힘매(白), 검은매(黑), 갠매
(犬), 사람임매(人)
- (3) 動詞尾에 尊稱으로 쓰는 疑問토 「매」(매)
함매(爲)〔現〕, 헛슴매〔過〕, 하겟슴매〔未〕
- (4) 名, 形, 動 各品詞尾에 尊稱으로 쓰는 不確實한 것을 보이는 答토. 「비」
함비(爲)〔現〕, 헛슴비〔過〕, 하겟슴비〔未〕 희우비(白), 검은우
비(黑) 개우비(犬) 사람이우비(人)
- (5) 目的格토 「을, 를」을 「으或우, 르或루」로 씀.
밥으 잡수오(食飯), 옷으 입는다(着衣), 술우 먹는다(飲酒), 피기르 삶는다(烹
魚)

(五) 中部方言(서울말).

- (1) 名, 形, 動 各品詞尾에 쓰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對答하는 토. 「사와
요」, 「와요」
그러사와요(然), 먹엇사와요(食), 먹겟사와요, 먹사와요, 크와요(大), 적사와
요(小), 소이와요(牛), 사람이 와요(인)
- (2) 까답을 表示하는 토. 「니깐두루」
가니깐두루(去), 먹으니깐두루(食)

4. 語彙.

이것은 더욱 다른 點이 많으니 그 까답은 무엇보다도 첫째 同一한 語原을 가진 말도 音韻의 變遷을 따라 形形色色으로 달라졌으며 或은 같은 말을 가지고 아조 만 뜻으로

쓰며 或은 같은 事物에 單 語原의 말을 쓰기도 한다. 그 紊亂한 程度는 方言區域을 갈라서 말할 수가 없으므로 이제 몇마디 말을 예로 들어서 大概 調査된 대로 各方言을 羅列하여 參考케 할 뿐이다.

- (1) 할아버지(祖父)를 할아바지, 할아부지, 할아배, 할아반, 할배, 할부지, 할배씨, 할바씨, 할밤, 할뱀이, 하르방, 안아씨, 큰아바이, 아바이.
- (2) 혀(舌)를 해, 헤, 셔, 세, 쎄, 새, 시, 씨, 쇠, 세바닥, 세까닥.
- (3) 키(箕)를 치, 체, 칭이, 쟁이, 쟁이, 푸는체.
- (4) 참외(眞瓜)를 참위, 참웨, 참왜, 참우, 참에, 참이.
- (5) 잠자리(蜻蛉)를 쟁자리, 자마리, 잔자리, 불잔자리, 남자리, 남아리, 찰기, 철기, 철갱이, 철이, 초리, 침니뱅이, 차랭이, 절갱이, 절냉이, 소곰쟁이, 까랭이, 어러리, 밤버리.
- (6) 여호(狐)를 여히, 여수, 여시, 야시, 야수, 애수, 예수, 앓기, 앓팡이, 앓갱이, 앓갱이, 앓갱, 영갱이, 영끼, 영우.

四. 結論

朝鮮語의 方言狀態는 上述한 바와 같이 紊亂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方言이 많음을 근심할 바가 아니요 다만 標準語와 標準綴字가 서지 아니 한 것을 걱정할 뿐이다.

朝鮮語는 적어도 獨特한 제 文字로 적어온 제가 이미 半千年이 되었으니 文獻도 적지 아니 하려니와 또 2,000餘萬人的 혀끝에 살아서 날로 움직이니 그 言語의 研究材料는 山같이 쌓여있다. 그러나 科學者의 開拓의 힘이 아직 넉넉이 미치지 못한 것을 恨嘆하는 바이다.

標準語를 세우는 科學的方法은 여러 方言 中에 가장 勞力있는 方言 하나를 가리어서 標準을 삼고 不足한 點과 잘못된 點은 文獻과 다른 方言으로써 補充하며 質正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標準朝鮮語를 세우는 대는 서울方言을 標準삼고 다른 地方의 方言과 또 옛 文獻으로써 그 못자람을 채우고 잘못 됨을 바로잡아서 國語의 科學的 基礎를 세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標準語와 標準綴字의 成立은 마춤내 標準辭典이 完成되어야 될 것이다. (끝)